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퀴타」 연구

-다양한 증거 본문들을 중심으로-

김경래

(전주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 구약학)

1. 들어가는 글

신구약 성서를 통하여 원본, 즉 저작자의 제1문서라고 할 수 있는 문헌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단지 원본을 베끼고 또 베끼기를 거듭한 사본들과 고대에 다른 언어로 번역된 역본들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역본들 역시 최초의 원본은 현존하지 아니하며, 단지 그 사본들만이 남아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고대 또는 중세로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사본들을 통하여 구약 성서를 대하게 된다. 오늘날 성서학자들이나 성서 번역자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구약 성서는 특정 사본 내지 다양한 사본들을 기초로 하여 편집된 간행본들이다.

히브리어 구약 성서의 본문에 있어서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는 유대인이 전수해온 마소라 성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20세기에 이르러 간행된 대표적인 히브리어 성서 간행본으로는 BHK¹⁾와 BHS²⁾를 들 수 있다. BHK 3판과 BHS의 기초가 되는 레닌그라드 사본은 아론 벤 아셀의 마소라

1) 키텔의 BHK(Kittel's Biblia Hebraica)는 1909년에 처음으로 빛을 보았으며, 히브리어 본문은 1524/25년에 간행된 야콥 벤 하임의 「제2람비성서」(*Biblia Rabbinica, A reprint of the 1525 Venice Edition Edited by Jacob Ben Hayim Ibn Adoniya, Introduction by Moshe Goshen-Gottstein*, Jerusalem: Makor Publishing Ltd, 1972)의 마소라 본문을 취하였다. 이 본문은 BHK 2판(1912)까지 사용되다가, BHK 3판(1937)에 이르러서는 레닌그라드 사본으로 교체된다.

2) BHK 3판(1937)에 이어 간행된 BHS(*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66/77) 역시 레닌그라드 사본을 본문으로 취한다. 특별히 콤파 사본의 발견으로 인하여 BHS의 본문비평 장치는 대폭 수정 및 보완된다.

사본으로서³⁾ 주후 1008년에 속하는 사본이다. 한편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에서는 알렘포 사본⁴⁾을 기초로 하여 1965년부터 장기적인 계획하에 ‘히브리대학교 성서’(Hebrew University Bible; 이하, HUB) 출판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대표적인 세 간행본은 모두 하나의 사본을 본문으로 삼고 난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록해 두는 ‘외교적 편집’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⁵⁾.

최근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의 주선으로 새로운 히브리어 성서 간행본 출판을 위한 지평이 열리고 있다.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키타’(Biblia Hebraica Quinta; 이하, BHQ)라고 불리게 될⁶⁾ 이 간행본은 ‘히브리어 구약 성서 본문 프로젝트’(Hebrew Old Testament Text Project; 이하 HOTTP)⁷⁾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이래 이미 여러 차례 BHQ 편집위원회의 모임이 열렸고, 새로운 히브리어 성서 편집을 위한 견본판도 나왔다⁸⁾.

3) 보다 정확하게 말하여, ‘레닌그라드 사본’은 아론 벤 아셀의 마소라 성경을 참조하여 수정한 사본으로서(주후 1008년), 성경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마소라 성경 사본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4) 마소라 성경을 얘기할 때 주후 10세기에 활동한 아론 벤 아셀의 사본을 빼놓을 수 없다. 아론 벤 아셀은 ‘카이로 예언서 사본’을 남긴(주후 895년) 모세 벤 아셀의 아들로서 자기 아버지의 사본보다 더 유명한 마소라 성경 사본을 남긴 사람이다. ‘알렘포 사본’이라고 불리는 이 성경 사본은 주후 93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서 구약 성경 전체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1947년 시리아에서 일어난 반 유대인 소요로 인하여 전체의 사본지일을 분실하였다. 이제까지 소실된 것으로 알려진(필자의 기억에 의하면, 최근에 이스라엘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소실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유에 의한 분실로 보도한 바 있음) 부분으로서, 처음 부분은 창1:1-신28:26이며, 마지막 부분은 아가3:12부터 시작하여 전도서, 예레미야 애가,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에 이른다. 이 사본은 시리아의 알렘포 회당에 보관되었으나 지금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5) 영어로 이를 diplomatic edition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 히브리어 사본 및 고대 번역본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이독들이 난외에 수록되어 있다. 이와는 대조적인 방식으로, 여러 사본들과 고대 번역본을 검토 편집자가 최초의 ‘원문’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본문으로 삼는 편집 방식을 가리켜 ‘절충식 편집’(eclectic edition)이라고 한다.

6) 여기에서 quinta라 함은 Biblia Hebraica의 다섯 번째 판이라는 뜻이다. 1937년에 나온 BHK를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3판’이라고 불렀고, 1967/77년에 나온 수정판은 BHS라고 불렀다.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가 기획하는 이 새판을 ‘제5판’(quinta)으로 부르는 이유는, BHS를 4판으로 보고 그것과의 연속성을 고려한 때문인 것 같다(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도서출판 두란노, 1996, 109쪽 각주).

7) 1969년 유진 나이다(Eugene A. Nida)의 주도 아래 시작된 HOTTP는 11년 동안 작업을 하여, 히브리어 구약에서 본문 비평의 대상이 되는 약 5000여 곳의 본문을 검토하고, 1973년부터 1980년까지 그 중간 보고서를 다섯 권으로 낸 바 있다. 그리고 1992년부터 현재까지 3권의 최종 보고서가 나왔으며, 앞으로 두 권이 더 나올 예정이다(민영진, op. cit., 110쪽).

8)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민영진, op. cit., 110-119쪽과 민영진, “BHQ 사무엘기-편집에 대한 제언과 효과적 사용을 위한 안내”(「목원성서연구지」 창간호, 1996) 1-40쪽을 참조할 것.

최근 성서학계와 구약 성서 번역자들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BHQ는 BHK, BHS, HUB 등과 마찬가지로 ‘외교적 편집’ 방식에 입각하여 BHK 3판과 BHS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레닌그라드 사본(B19A)을 기초로 하여 편집될 예정이다. BHQ는 대체로 BHK 또는 BHS와 비슷한 편집 방식을 취하지만, 하박국서 1장의 견본 편집을 통하여 볼 때 달라진 점으로는, 본문 윗부분 난외 여백에 전에 없던 대마소라 주기가 있다는 것, 본문 아랫부분 난외 여백에 위의 대마소라 주기의 내용을 영어로 설명해 놓은 난이 있다는 것, 그리고 본문 비평 장치의 내용이 더 풍성해진 것 등이다⁹⁾.

1947년 이래로 콤란을 비롯한 사해 여러 지역에서의 고대 성서사본 발견은 성서학자들에게 큰 자극을 주어 성서사본학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하였으며, 아울러 BHQ의 달라진 점에서 보듯이 본문 비평 장치를 위한 풍성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는 구약 성서의 여러 증거 본문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야말로 BHQ 이해와 적절한 사용, 더 나아가서는 보다 더 건전한 판단에 입각한 본문 비평 장치의 마련을 위한 기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BHQ의 본문 비평 장치에 동원되는 여러 증거 본문들을 학문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피상적인 소개를 지양하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관찰해보고자 한다. 이들 증거 본문들의 역사적 맥락은 본서에 나란히 게재된 필자의 다른 논문인 “구약 성경 본문 전래과정에 대한 고찰”에서 소개하고 있다.

2. BHQ의 증거 본문들

히브리어 구약 성서 본문 연구에 있어서 단순히 후대인들에 의하여 발견됨으로 인하여 현존하고 있는 사본들만을 가지고 논한다는 사실은 그 출발부터가 이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시인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 현존하는 사본들을 반드시 이제까지 생성된 모든 증거 본문들을 위한 대표적인 증거로 보아야 할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증거들만을 가지고 성서 본문 연구를 착수하여, 마치 그것들이 성서 본문에 대한 대표적인 증거인양 가정하고 이 작업을 진행하여

9)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113쪽.

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이들 다양한 증거 본문들 중에는 그 전체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본을 통하여 온전하게 전해 내려오는 것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단편적으로 조각 사본들을 통하여 전해지거나 또는 타문헌에 언급되거나 인용되는 정도로 전해지는 경우도 있다. 어떤 증거 본문은 애초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형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기록된 사본들만으로 알려진 경우가 있는가 하면¹⁰⁾, 어떤 증거 본문은 아마도 그 최초의 사본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경우도 있다¹¹⁾.

히브리어 구약 성서의 비평적 편집에 있어서 편집자의 추정을 통하여 나온 가상적 본문을 책정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그것은 본문 내지 본문 비평 장치 마련을 위하여 편집자가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과제가 현존하는 모든 증거 본문들을 비교 분석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여러 증거 본문들을 비교 평가하는 것은 그리 쉬운 작업이 아니다. 사실 우리는 BHK 또는 BHS의 본문 비평 장치 가운데서 몇몇 증거 본문상에 (특별히 고대 역본에) 나타나는 이독에 대한 잘못된 평가와 남용, 마소라 성서의 난해 본문에 대한 편집자의 어설픈 제안과 같은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여러 증거 본문들을 둘러싼 사본학적 판단이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반영해 준다.

HOTTP 위원회에서는 ‘히브리어 본문의 발달과정’을 네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1) 문학 분석(literary analysis)을 통하여 밝혀지는 “본래의 본문”(original texts), 2) 본문 분석(textual analysis)을 통하여 밝혀지는 “가장 초기의 것으로 증명된 본문”(the earliest attested text), 3) 주후 70년 직후에 유대교 학자들이 권위 있게 정리한 히브리어 구약 자음 본문 = ‘원(原) 마소라 본문(Proto-Massoretic text), 4) 주후 9-10세기 경에 마소라 학자들이 확정한 마소라 본문¹²⁾. 현존하는 다양한 사본들간에 존재하는 얽히고 설킨 상호관계를 감안할 때, 이러한 분류는 성서 본문의 시대별 특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차라리 몇몇 역사적으로 중요한 분

10) 예를 들어 마소라 본문의 전통은 아주 오래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그 사본적 증거로서는 주후 9세기 이후의 것들이 대표성을 띠고 있다.

11) 쿤란 일대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사본들은 그 특성상 각각 초기의 기록에 비교적 가까운 증거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을 ‘본래의 원문에 가깝다’거나 또는 ‘더 신빙성이 있다’는 뜻으로 오해하여서는 안된다. 오히려 쿤란 일대에서 발견된 여러 사본들의 경우 훨씬 후기에 기록된 마소라 성서 본문보다 졸속한 본문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12) 이에 대하여는 민 영진, “구약 성서의 번역 대본”, 「그말씀」(1994.6), 88-98쪽을 참조할 것.

기점을 기초로 하여 본문 전송 단계를 설정하고 각 단계에 속한 사본들을 연대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1. 에스라에서 헬레니즘 시대 초기까지(주전 6-4세기)

성서 구절을 담고 있는 모든 문서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1979년 예루살렘의 힌놈 골짜기 옆 비탈에서 발견된 두 개의 은편자 두루마리 조각으로서, 여기에는 민수기 6장의 일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대략 주전 7세기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¹³⁾. 고대 히브리어체로 기록된 이 두루마리 조각의 발견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약 성서 본문이 성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해 온 것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부터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유대인의 분류법에 의하면 구약 성서는 토라(=율법), 예언서, 성문서로 구분된다. 구약 성서는 극히 일부를¹⁴⁾ 제외하고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 히브리어 성서는 본래 자음만으로 기록되었으며 글씨체는 현대 인쇄된 모양의 정방형과는 다른 고대형의 글씨체였다. 이런 고대 히브리어체는 사마리아인들이 전수해온 사마리아 오경의 필체와도 비슷한데, 쿨란에서 발견된 몇몇 사본에서¹⁵⁾ 그 모양을 엿볼 수 있다. 주전 6-4세기 중에 기존의 구약 성서 본문에 대한 필체 전환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추측해볼 수 있는 바는, 얼마든지 오류가 끼여들어 올 수 있다는 점이다. ‘달렐’(דלל)과 ‘레쉬’(לש), ‘베트’(ב)와 ‘카프’(כ) 등 서로 비슷한 글자의 변화는 아마도 이런 과정 중에 쉽게 발생하였을 것이다.

이때 활동한 이들이 바로 마소라 학자들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이다. 서기관은 히브리어로 ‘소펠’, 그리스어로 ‘그람마투스’라고 일컫는다. 히브리어 ‘소펠’은 ‘왕실의 고위 관직중의 하나인 사관’ 또는 ‘율법의 기록

13) G. Barkai, Ketef Hinnom - *A Treasure Facing Jerusalem's Walls*, Jerusalem, 1986.

14)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은 창31:47의 두 단어(“예갈 사하두타”), 렘 10:11, 스4:8-6:18, 7:12-26, 단2:4-7:28이다.

15) 쿨란에서 발견된 성경 사본 중 고대 히브리어 체로 기록된 사본으로는 레위기 사본이 다섯, 창세기 사본이 둘, 출애굽기 사본이 둘, 신명기 사본이 둘, 민수기 사본이 하나, 욕기 사본이 하나로 포함 열 셋이나 된다(1QpaleoLev, 1QpaleoNum, 1QpaleoLev^b, 2QpaleoLev, 4QpaleoGen¹, 4QpaleoEx¹, 4QpaleoEx^m, 4QpaleoDeut^r, 4QpaleoDeut^s, 4QpaleoJob^c, 6QpaleoGen, 6QpaleoLev, 11QpaleoLev).

자'라는 뜻으로 구약 성서에 여러 번 언급되어 있다¹⁶). 바벨론 포로지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온 이후에 서기관들(복수형 '소프림')은 율법에 대한 합법적 해설자인 동시에 수호자의 구실을 하였다. 서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율법의 글자 하나 하나를 센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이들은 레11:42의 '배'(יַמָּ)라는 단어의 세 번째 글자 '와우'(ו)가 토라의 가운데 글자라는 것을 알아내었다. 이들 서기관들의 구체적인 활동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고대 히브리어체를 정방형의 아람어체로 바꾼 것은 바로 이들 서기관들의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콤란에서 발견된 고대 히브리어체 사본들의 연대가 대략 주전 3-1 세기에 속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글씨체의 변화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확립된 듯하다.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마 5:18)는 예수님의 말씀은 늦어도 예수님 당시인 주후 1세기까지는 이미 구약 성서의 기록에 있어서 아람어체가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였다는 증거가 된다¹⁷).

서기관들의 활동은 글씨체를 바꾼 일만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그들은 낱말을 띄어 쓰면서 특별히 몇몇 단어들을 더 분명히 구분하고자 몇 글자의 종지형을 창안해낸다¹⁸). 또한 서기관들은 일반인들이 율법을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직 모음 부호가 고안되어 사용되기 이전에 이미 몇몇 자음 글자를 모음으로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¹⁹).

2.2. 주전 3세기에서 주후 70년까지

2.2.1. 콤란 사본²⁰)

16) 관직의 뜻으로 쓰인 예로는 삼하8:17; 20:25; 왕하12:11(10); 18:18,37; 렘52:25 등이 있고, 율법이나 다른 글을 기록하는 사람의 뜻으로 쓰인 예로는 렘36:26; 스7:11 등이 있다.

17) 고대 히브리어 체의 경우 예수님이 '짐'이라고 말씀하신 글자 '요드'(י)는 가장 작은 글자가 아니다. 그것은 정방형의 아람어체인 경우에 가장 작은 글자에 속한다.

18) 종지형을 가진 히브리어 글자로는 '멤'(מ/ם), '눈'(נ/ן), '짜디'(צ/ץ), '페'(פ/ף), '카프'(ק/ך) 다섯 글자가 있다.

19) 모음으로 사용된 글자로는 '와우'(ו), '헤'(ה), '요드'(י), '알렐'(ל) 등이 있다.

20) 김경래, 「유대인의 보고(寶庫)」(전주대학교 출판부, 1977) 28-32쪽 참조.

앞서 언급한 주전 7세기의 은편자 두루마리 조각 외에, 현존하는 구약 성서 사본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제2성전 시대²¹⁾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 대다수의 고대 사본은 쿠파에서 발견된 것들로서 주전 3세기-주후 1세기 사이의 것들이다.

쿠파 사본은 하나의 단일 사본이 아니다. 쿠파 사본은 1947년 이후 사해 북서안에 위치한 쿠파 일대에서 발견된 여러 종류의 사본군을 의미한다. 그 중에는 성서 사본들도 있고 비성서 사본들도 있다. 처음에는 베두인(사막 지대의 유목민)에 의하여 우연히 발견되었으나, 나중에는 학자들의 전문적인 발굴 내지는 베두인들의 도굴에 의하여 점차 빛으로 드러난 고대 사본들이다. 이들 발견된 사본들의 대부분은 현재 예루살렘 내의 이스라엘 박물관과 록펠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아직까지 많은 사본들이 출판되지 않았으나 모든 사본에 대한 간략한 묘사는 이미 이루어졌고 가장 중요한 사본들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미 출판되었다. 따라서 학자들 간에 이미 이 새로운 문서들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가 모두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처음 사본들이 학계에 소개된 이후로 사해 사본에 대한 연구는 활기를 띠어 많은 학자들이 쿠파 공동체와 이들의 문서 활동 배경에 대하여 그리고 신약 시대와 초대 기독교의 배경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여기서는 성서 사본에 대하여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쿠파에서 발견된 성서 사본들의 상태와 범위는 사본마다 다르다. 제1동굴에서²²⁾ 발견된 이사야 사본(1QIs^a)의²³⁾ 경우 66장 전부를 포함하고 있으나, 다른 사본들의 경우 종종 작은 조각만 발견되었을 뿐이다. 에스더서만 제외하고 구약 성서의 모든 책이 전부 또는 일부 조각의 형태로 모두 발견되었다. 게다가 이제까지 그리스어나 다른 언어로만 알려졌던 몇몇 외경과 가경이 히브리

21)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제2성전 시대라 함은 대략 에스라 때부터 시작하여 주후 70년 제2성전이 파괴되기까지의 시대를 뜻한다.

22) 쿠파 동굴의 번호는 학자들에 의하여 편의상 지정된 것이다.

23) 이사야 사본(1QIs^a)에 관하여는 김경래, 「구약 성경의 맥을 따라서」(도서출판 대장간, 1977), 305-310쪽을 참조할 것. 이 이사야서 두루마리는 모두 54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54쪽의 문서를 위하여 17장의 양피지를 삼베실로 꿰매어 연결하였는데, 각 양피지의 평균 높이는 26.2cm 이며 그 길이는 다양하다. 이 두루마리는 그 전체 길이가 7.34m에 이른다. 이 성서 사본이 기록된 연대는 보통 주전 2세기경으로 추정된다. 이 이사야 사본(1QIs^a)은 시간상으로 비록 주후 10-11세기에 필사된 마소라 사본들보다 1000여년이나 앞서 있는 중요한 고대 사본이긴 하지만 그 필사(筆寫)의 정확도에 있어서는 실제로 후자보다 훨씬 못한 사본이다.

어 또는 아람어로 기록된 조각 사본으로 발견되기도 하였다. 제11동굴에서 발견된 시편 사본(11QPs^a)의²⁴⁾ 경우, 성서에 포함된 몇몇 시편 외에도 소위 말하는 외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시들과 심지어는 이제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시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가장 많은 사본들이 발견된 동굴은 제4동굴이다. 이곳 4동굴에서 발견된 성서 사본들의 수만²⁵⁾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고대 사본들이 쿤란에서 발견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창세기 11; 출애굽기 11; 레위기 4; 민수기 2; 신명기 18; 여호수아 2; 사사기 2; 사무엘상 3; 열왕기상 1; 이사야 15; 예레미야 3; 소선지서 7; 시편 17; 욥기 3; 잠언 2; 룻기 2; 아가 3; 전도서 2; 예레미야 애가 1; 다니엘 5; 에스라 1; 역대기 1. 대부분의 경우 조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글씨체를 통하여 서로 다른 사본임을 구분할 수 있다.

쿤란에서 발견된 사본들은 편의상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를 들어서 1QIs^a의 경우 맨 앞의 숫자 1은 동굴 번호를, 영어 글자 Q는 쿤란을, Is는 이사야서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영어 글자 ^a는 제1동굴에서 발견된 이사야 사본 중 첫 번째 것임을 가리킨다. 쿤란 사본의 대부분은 정방형의 아람어체로 쓰여졌는데 일부는 고대 히브리어체로 기록되었다. 이들 고대 히브리어체의 사본들은 특별히 ‘옛날의, 고대의’라는 뜻을 가지는 영어 글자 paleo를 덧붙여 표시한다. 예를 들어서 4QpaleoEx^m은 쿤란 제4번 동굴에서 발견된 출애굽기(Ex) 사본들 중 열세 번째(^m) 것으로서 고대 히브리어체로 쓰인(paleo) 것이다.

쿤란에서 발견된 성서 사본들은, 나시 파피루스²⁶⁾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제2성전 시대에 성서 문서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증거가 된다. 쿤란 사본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제2성전 시대에 구약 성서 본문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전승으로 전수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고고학과 역사적 증거들을 통하여 볼 때, 쿤란 공동체는 대략 주전 150년에서 주후 68년 사이에 쿤란 일대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쿤란 사본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이 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쿤란 공동체의 초창기 주민들이

24) 11QPs^a에 관하여는 김경래, 「구약 성경의 맥을 따라서」(도서출판 대장간, 1977), 262-265쪽을 참조할 것.

25) P.W. Skehan, "The Biblical Scrolls from Qumran and the Text of the Old Testament," *Biblical Archaeologist* 28(1965) 87-100.

26) 주후 1-2세기의 사본으로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결합한 내용을 담고 있다(1903년에 출판됨).

그것을 가지고 들어왔음이 분명하겠기 때문이다. 글씨체의 분석에 의하여 가장 오래된 콤파 사본은 대략 주전 3세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콤파에서 발견된 성서 사본은 모두 11개의 동굴에서 나온 것이다. 이들 성서 사본들의 특색은 마소라 성서와 비교하여 얘기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제1, 2, 3, 5, 6, 8 동굴에서 발견된 사본들은 미세한 일부 차이점만을 제하고는 대체로 마소라 성서와 동일한 본문을 보여준다. 어떤 사본들은 마소라 성서의 전승을 반영하면서도 몇몇 큰 차이점을 보여준다(예: 11QPs^a). 어떤 사본들은 비록 마소라 성서의 전승에 기초하고 있으나 비교적 자유로운 필사 활동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이런 류의 사본은 2차적인 내용이 많이 삽입되어 있고 또 문법 및 문맥상 어려운 부분을 삭제하기도 한다(예: 1QIs^a). 어떤 사본들은 칠십인역 또는 사마리아 오경과 유사점을 보여준다²⁷⁾. 이들 외의 다른 사본들은 독립적 성격을 보여준다²⁸⁾.

2.2.2. 그리스어 칠십인역 성서²⁹⁾

주전 4세기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흥왕하여 당시 말하는 ‘세계’를 정복한 일은 유대인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을 이룬다. 알렉산더는 ‘세계’를 정복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아울러 소위 말하는 ‘헬레니즘 문화’를 온 세계에 뿌리는 일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는 삼시간에 헬라화되어 그 후 수백 년간 헬라 문화의 옷을 입고 거의 공동 운명을 나누게 된다. 이때 유대인도 이 헬라화라는 거대한 물결을 벗어나지 못한다. 헬라 세계가 시작되면서 유대인들은 또 다시 타의 또는 자의로 본토를 떠나 헬라 세계 구석구석으로 흩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헬라 세계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시작이다. 사도행전에 기술된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우리는 주후 1세기 얼마나 넓은 지역에 유대인이 흩어져 살고 있었는지를 엿

27) 콤파에서 발견된 성경 사본들 중에 몇몇은 사마리아 오경과 더불어 뚜렷하게 확장 현상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학계에서는 사마리아 오경이 이들 사본들 중 하나를 받아 전수한 것으로 믿고 있다. 이 그룹에 해당하는 사본으로는 4QpaleoExodusm, 4QNumb, 4QDeutn, 4Q158, 4Q364-367 등이 있다. 다만 이들 사마리아 선조 사본들 중 어느 하나도 사마리아 오경의 분과적 목적에 의한 확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마리아 오경에 나타난 분과적 목적의 확장은 전적으로 사마리아인들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8) 예를 들어서 11QpaleoLeva, 4QDeutj,n, 4QJosh, 4QJudga, 5QDeut, 등은 마소라, 칠십인역, 사마리아 오경의 세 가지 그룹과는 다른 독특성을 보인다(더 자세한 정보는 E.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1992, 114ff.를 참조할 것).

29) 김경래, 「유대인의 보고(寶庫)」(전주대학교 출판부, 1977) 22-25쪽 참조.

볼 수 있다.

주전 4세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헬라 세계 안의 유대인 디아스포라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역시 알렉산드리아의 디아스포라였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쪽 지중해변에 위치한 도시로서 전 헬라 세계를 통하여 손꼽히는 헬레니즘 도시였다. 헬라화의 물결 이전에도 유대인들이 이집트 땅에 드문 드문 들어온 일이 있었으나 이때처럼 대규모의 유대인이 이주하여 커다란 디아스포라를 형성한 적은 없었다. 주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을 기념할 목적으로 알렉산드리아를 세울 때, 그는 이 새 도시 안에 특별히 유대인을 위한 구역을 설정해 주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완전한 시민권까지 허락하였다. 주전 323년 비록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요절하였으나,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은 이집트 통치를 계승한 프톨레미 왕조 하에 계속 번영을 누렸다.

이들은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유대교의 독특한 종교 및 문화 유산을 지키는데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헬라화라는 거대한 물결에 노출된 나머지 점점 자기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당대의 공용어인 그리스어를 모어로 대치하기 시작하였다. 언어의 변화는 그들의 고유 종교 유산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크나큰 장애물이 되었다. 유대인은 책의 민족으로서 성서라는 그들의 경전을 통하여 하나님 섬기는 도를 배웠기 때문이다.

자기들의 종교적 생존에 위기를 느낀 알렉산드리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드디어 ‘거룩한 말씀’을 자기들의 일상 생활 언어인 그리스어로 옮길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런 필요의 결과가 바로 소위 말하는 칠십인역 성서의 탄생이다³⁰). 먼저 주전 3세기에 모세의 토라가 번역되었으며, 그리고 다음 세기까지는 네비임(= 예언서)과 케투빔(= 성문서)이 모두 완성됨으로서 유대인의 경

30) 사실상 칠십인역의 유래는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략 주전 100년 경의 문서로 간주되는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영어 번역으로는 R.H. Charles, *The Apocrypha and Pseudepigrapha of the Old Testament in English*, vol.II, Oxford, 1913, pp. 94-122를 참조할 것)는 칠십인역의 유래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헌이라 하겠다. 비록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그 안에 몇 가지 점은 진실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번역은 토라 곧 모세 오경만을 뜻한다. 적어도 이 토라 부분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주전 3세기에 번역이 완성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번역은 왕립 도서관의 필요보다는 알렉산드리아 유대인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것이다. 구약의 나머지 부분인 전후기 예언서와 성문서는 아무리 늦어도 주전 2세기까지는 이미 다 완성되었음이 분명하다. 참고적으로 필로(*De Vita Mosis*, II, v-vii, 25-44), 요세푸스(「유대인 고대사」 제12권 12-118절), 주후 2세기 이후의 기독교 교부들(순교자 저스틴, 이레니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터툴리안,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 에피파니우스, 어거스틴 등) 역시 아리스테아스의 편지 내용을 알고 있었던 듯 하다.

전인 구약 성서는 오랜 은둔을 깨고 그리스어라는 옷을 입고 그 당시의 ‘세계’에 노출된 것이다. 이는 실로 이스라엘과 헬라 세계의 접촉이라는 점에서 역사상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알렉산드리아와 이집트에서 칠십인역은 히브리어 성서 못지 않게 권위 있는 성서로 존중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헬라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칠십인역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였을 것이다. 비록 콤란에서 칠십인역 사본이 몇 점 발견되긴 하였으나 이스라엘 내의 회당에서 칠십인역이 쓰인 일이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칠십인역을 대대적으로 환영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사도 시대와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칠십인역은 실로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헬라 세계 유대인의 성서가 되었던 것이다.

히브리어 구약 성서가 그리스어로 번역된 이후 약 6세기 동안 이 칠십인역은 헬라 세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초대 교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칠십인역은 우선 헬라계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성서로서 그리스어를 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개종자들까지 복음을 위해 준비시켰으며, 그리스어라는 새로운 종교 언어를 창출하여 그리스어로 기록된 복음의 진파를 가속화시켰다. 기독교는 자연스럽게 칠십인역을 자기들의 경전으로 받아들였고, 칠십인역에 기초한 번역 작업으로 기독교의 복음은 헬라 세계의 경계를 넘어 전진한다.

그러다가 주후 4세기부터 세계 정치 판도의 변화로 칠십인역의 중요성은 점점 상실되어 동방 정교회에서만 사용으로 국한된다. 그러나 칠십인역은 오늘날도 구약 성서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성서 문서를 대변할 뿐 아니라, 동시에 가장 오래된 역본으로서 고대의 성서 해석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칠십인역은 신약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문헌으로서 신약 연구에도 아주 중요하다. 신약 성서는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 자연히 같은 코이네 그리스어로 기록된 칠십인역을 편리한 인용 도구로 삼았겠고, 또 용어 설정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신약 성서의 부분 부분마다 칠십인역에 대한 지식을 반영한다. 오늘날 신약 성서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칠십인역의 가치는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그리스어 사본은 크게 대문자로 쓰여진 것과 초서체 소문자로 쓰여진 것들로 나누인다. 대문자로 쓰인 사본들은 대략 주후 3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걸쳐 있고, 초서체 소문자로 쓰인 사본들은 대략 주후 9세기에서 시작하여 16세기 인쇄술이 발명되기까지 걸쳐 있다. 칠십인역의 전체 사본 수는 모두 400개 가까이에 이르지만, 그중 구약 성서 전체를 담은 것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사본으로는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을 들 수 있다.

2.2.2.1. 알렉산드리아 사본

주후 5세기에 기록된 사본으로 현재 대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고급 피지에 대문자로 기록되었으며, 낱장의 크기는 32cm x 26.3cm이다. 구약과 신약을 모두 담은 사본으로서, 구약 중 손상된 부분은 창14:14-17; 15:1-5, 16-19; 16:6-9; 삼상12:18-14:9; 시49:19-79:10 등이다.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모두 네 권의 책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 첫 세 권은 도합 639쪽의 낱장에 구약을 담고 있다. 한 면에 두 열로 기록되었으며 몇 권의 외경이 포함되어 있다.

2.2.2.2. 바티칸 사본

주후 4세기에 기록된 사본으로 현재 바티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고급 피지에 대문자로 기록되었으며 역시 신구약을 전부 포함하고 있다. 첫 부분의 손실로 현존하는 사본은 창46:28에서 시작된다. 그 외에 손실된 부분으로는 삼하2:5-7, 10-13; 시105(106):27-137(138):6 등이 있다. 바티칸 사본의 총 759쪽 중에서 617쪽이 구약을 담고 있다. 한 면에 세 열로 기록되었으며 역시 외경을 포함하고 있다.

2.2.2.3. 시내 사본

주후 4세기에 기록된 사본이다. 대문자로 기록되었으며, 낱장의 크기는 38cm x 34.3cm이다. 이 사본의 대부분은 1844년과 1859년 두 차례에 걸쳐 시내 산의 카타리나 수도원에서 티센도르프에 의하여 빛을 보게 되었다. 한 면에 네 열로 기록되었으며 외경도 포함되었다.

2.2.3. 사마리아 오경의 선조 사본과 사마리아 오경

20세기 중반에 들어와 새로이 발견된 성서 사본들(특별히 콤파 사본들)은 성서 사본학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다. 그 중에서도 소위 ‘사마리아 오경의 선조 사본들’(pre-Samaritan texts)이라고 불리는 사본들의 발견은 사마리아 오경의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를 불러일으켰다. 이들 사마리아 선조 사본들에는, 비록 사마리아 오경의 분과적 요소들은 찾아볼 수 없으나, 사마리아 오경과 유사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 있다. 이로 보건대,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선조 사본들과 유사한 사본 하나를 취하여 거기에 나름대로의 편집적 변화를 삽입시킨 것으로 보인다.

사마리아 오경과 유대인이 전수해 온 마소라 성서를 비교해 보면 내용상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몇 가지 현저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현저한 차이란 성서 본문 전래 과정에서 곧잘 생길 수 있는 오류가 아니라 서기관들이 의도적으로 성서 본문에 긴 구절을 첨가시켰거나 또는 일부를 바꾸어 놓은 것으로 보이는 편집적 내용을 뜻한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확장’이라고 한다.

사마리아 오경의 확장 현상은 성서 사본 비평학에 있어서 잘 알려진 사실 중의 하나이다. 사마리아 오경의 사본들 중 가장 오래 된 것은 대략 주후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므로, 보존 상태만을 통해서 볼 때 다른 사본들에 비하여 결코 오래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종래의 많은 성서학자들은 사마리아 오경에 나오는 확장 현상이 상당히 후대의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콤파 사본들의 발견과 그 연구로 인하여 이러한 확장 현상은 이미 주전 2세기를 전후하여 유대인 가운데 존재하였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오경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확장 현상은 대부분 사마리아 분과 고유의 것이 아니다. 제2성전 시대(주전 제6세기 말 - 주후 70년)에 이미 그러한 특성을 지닌 오경 사본들이 유대인 중에 상당히 배포되어 있었으며, 사마리아인들이 그러한 사본들 중 하나를 자기들의 모범 사본으로 삼은 후, 후에 자기들의 분과적 요소와 다른 필요한 요소를 첨가하였음에 틀림없다.

콤파에서 발견된 성서 사본들 중에 몇몇은 사마리아 오경과 더불어 뚜렷하게 확장 현상을 보인다. 이 그룹에 해당하는 사본으로는 4QpaleoExodum, 4QNumb, 4QDeutn, 4Q158, 4Q364-367 등이 있다. 이들 사마리아 선조 사본들 중 어느 하나도 사마리아 오경의 분과적 목적에 의한 확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마리아 오경에 나타난 분과적 목적의 확장은 전적으로 사마리아인들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마리아 선조 사본들과는 달리, 사마리아 오경 가운데는 사마리아인들이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의도적으로 성서 문헌에 삽입시켰거나 바꾸어 놓은 것으로 보이는 분파적 내용이 담겨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을 예배 중심지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들의 경전인 사마리아 오경 안에도 이를 지지하는 내용을 삽입시킨 것이다. 이러한 분파적 내용이 언제부터 사마리아인들의 경전에 들어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략 주전 2-1세기로 본다³¹⁾.

사마리아 오경의 간행본으로는 von Gall의 *A. Der Hebräische Pentateuch der Samaritaner*(Giessen, 1918)와 사마리아인인 A. & R. Sadaqa가 편집한 *Jewish and Samaritan Version of the Pentateuch*(Holon, 1961-1965) 등이 있다.

2.3. 주후 70년에서 주후 8세기까지

2.3.1. 콤란 외 사해 일대에서 발견된 사본들

콤란 사본과 더불어 ‘사해 사본’ 또는 ‘유다광야 사본’이라는 보다 넓은 범위의 이름 아래 불리는 다른 사본들 중에서, 사해 근처 맛사다에서 발견된 성서 사본들은 주후 73년 이전의 것이며³²⁾, 와디 헤벨과 와디 제엘림, 그리고 와디 무라바아트 등지에서³³⁾ 발견된 성서 사본들은 주후 130년 이후의 것들로서, 사실상 마소라 성서와 동일한 성서 문서들이다. 이는 주후 70년을 전후하여 유대인 사이에 구약 성서 사본이 통일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좋은 증거가 되기도 한다.

31) Kyung Rae Kim, *Stud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maritan Pentateuch and the Septuagint*(「사마리아 오경과 칠십인역의 관계 연구」),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예루살렘, 1994, pp. 9-14.

32) 맛사다 사본에 관한 정보로는 Y. Yadin, *Masada, First Season of Excavation, 1963-1964*(Heb.; Jerusalem 1965) 115-117; Y. Yadin, *Masada*(Jerusalem / Tel Aviv / Haifa 1966) 168-191; S. Talmon, "Fragments of Scrolls from Masada," *Eretz Israel* 20(1989) 278-286(Heb. with Eng. summary) 등을 볼 것.

33) 와디 헤벨에서는 창세기, 민수기, 시편의 조각 사본이, 그리고 Wadi Murabbat에서는 토라, 이사야, 12소선지서의 조각 사본이 발견되었다(DJD II [Oxford 1961] 1-3, 88 참조). 한편 이와 비슷한 부류의 조각 문서 사본들이 약 200,000점 가량 1890년대 옛 카이로의 Fustat 회당 게니사에서 발견되었다(M.C. Davis, *Hebrew Bible Manuscripts in the Cambridge Genizah Collections*, vols. 1-2, Cambridge 1978, 1980; I. Yeivin, *Genizah Bible Fragments with Babylonian Massorah and Vocalization* [Heb.; Jerusalem 1973] 참조).

2.3.2. 아람어 성서(타르굼)의 등장³⁴⁾

주전 588년 유다 왕국이 망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생활하게 되면서 이들은 서서히 당대의 국제언어라고 할 수 있는 아람어를 일상 생활 언어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아람어는 유대인의 언어이자 구약 성서의 언어이기도 한 히브리어와 아주 유사한 자매 언어로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코 배우기에 힘든 언어가 아니었다³⁵⁾.

일반적으로 바벨론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아람어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간주된다. 이 무렵에 기록된 에스라서와 다니엘서에는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이 히브리어 부분과 나란히 놓여 있다³⁶⁾.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 백성까지 아람어를 문제없이 이해할 수 있었음을 증명해 주는 좋은 증거가 된다. 아람어가 유대인들 가운데 위세를 떨치면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서를 아람어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아람어 통역 내지 해석은 회당 예배로 서서히 파고들다가 결국은 성문화되어 소위 말하는 아람어 타르굼을 이루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아람어 타르굼은 진정한 의미의 번역이라기보다는 종종 번역문 사이사이에 해설문을 덧붙인 자유로운 의역에 해당한다.

쿰란에서 발견된 ‘읍기 타르굼’은 대략 주전 200년 경에 처음 문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아람어 성서의 문자화는 늦어도 이미 주전 3-2세기에 시작된 셈이 된다. 이러한 작업은 대략 주후 7세기까지 계속된다. 이처럼 ‘타르굼’은 하나의 통일적인 성서 역본이 아니다. 그 시대도 다르거니와 역자 또한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히 다양한 종류의 ‘타르구뎀’('타르굼'의 복수형) 전승이 전해진다. 모세 오경만의 아람어 역본을 두고 볼 때, 온켈로스의 타르굼은 비교적 문자적 번역을 시도한데 반하여, 일명 ‘가짜 요나탄 타르굼’이라고도 불리는 ‘에루살렘 타르굼’은 온갖 주석적 요소로 가득 차 있어서 주석가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한 타르굼이라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모세 오경

34) 김경래, 「유대인의 보고(寶庫)」(전주대학교 출판부, 1977) 20-21쪽 참조.

35) 사실상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아람어를 사용하였으며(창31:47의 ‘여갈사하두다’는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이다),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보낸 야곱으로서도 아람어를 익숙하게 구사하였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야곱(=이스라엘)부터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모두 구사한 셈이다. 앗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폐망시키고 남왕국 유다의 대부분까지 정복한 무렵, 곧 히스기야 왕 때에 일반 백성은 아람어를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왕궁의 고위 관리들은 아람어를 능히 이해하고 구사할 줄 알았다(왕하18:26-28; 사36:11-13). 따라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익히기는 아주 쉬운 일이었다.

36) 에스라와 다니엘 중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은 스4:8-6:18; 7:12-26; 단2:4-7:28이다.

의 타르굼을 온켈로스에게 돌리는 것처럼, 구약 성서의 둘째 부분인 예언서의 타르굼은 요나탄에게로 돌린다.

2.3.3. 칠십인역 외 다른 그리스어 역본들

칠십인역이 초대 기독교의 손으로 옮겨져 유대인을 적대시하는 이들에 의하여 사용되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은 자연히 칠십인역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사야 7:14의 번역을 들 수 있다. 히브리어 ‘알마’를 ‘처녀’의 뜻을 가진 ‘파르테노스’라고 번역한 칠십인역은 그릇되었으며 마땅히 ‘젊은 여자’라는 뜻의 ‘네아니스’로 번역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유대인들은 더욱더 ‘책의 민족’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 책’의 한계를 분명히 정하는 동시에 그들이 표준판으로 여기는 사본을 보호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기독교의 성서인 칠십인역에 포함된 외경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주후 2세기 칠십인역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감은 비단 기독교와의 적대적 관계나 외경 문제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칠십인역은 당시 유대인 중에 표준 성서로 받아들여진 성서와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칠십인역이 구시대의 전승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점차 의심을 받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점차 칠십인역의 사용을 기피하였다. 따라서 그리스어를 쓰는 유대인들을 위한 새로운 번역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 일을 착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바로 아퀼라, 테오도티온, 씬마쿠스의 그리스어 번역본들이다.

아퀼라는 폰투스 출생의 이방인이었다.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기독교로 개종하였으나, 자신의 점성술을 포기하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교회에서 출교된 후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한다. 그는 랍비 아키바의 제자로서 유대인의 성서 해석을 배우는데 진념한다. 그의 번역의 목적은 당시 이미 기독교의 성서로 받아들여진 칠십인역의 해석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주후 130년 경에 완성된 그의 번역은 유대인 사이에 대대적인 환영을 받는다. 그의 스승들은 시편 45:3(2)의 “인생보다 아름다워”라는 말로써 그를 극구 찬양하였다. 아퀼라의 번역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계속 인기를 누렸고, 유대인 랍비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공식적 번역이 되었다. 기독교에서는 자연히 개종자의 번역을 좋아할 리가 없었다. 하지만 오리겐이나

제목 같이 후기에 히브리어 성서를 연구한 이들은 아퀼라의 번역의 충실성을 높이 평가한다.

아퀼라는 ‘문자의 노예’였다. 그는 히브리어 원문의 한 자라도 놓치지 않고 자 모든 글자를 그리스어로 그대로 직역하였다. 그 결과 그리스어의 문학적 성격은 파괴되었으나, 히브리어의 뜻뿐만 아니라 순서 및 문자적 의미까지 고스란히 지켰던 것이다. 히브리어 표준 성서와 당대 유대인 랍비들의 전통적인 해석에 대한 충실성 때문에, 아퀼라의 그리스어 번역은 그 그리스어 문학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회당의 전적인 지지를 받는다.

아퀼라의 번역은 현재 그 전부가 남아 있지 않다. 일부가 조각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아퀼라역은 그 지나칠 정도의 문자적 번역 때문에 오리겐과 제목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서 사본 비평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다³⁷⁾.

테오도티온은 아퀼라보다 약 반 세기 이후에 히브리어 성서를 새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사람이다. 이레니우스에 의하면³⁸⁾ 테오도티온은 에베소 출신의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다. 제롬³⁹⁾은 그를 에비온파로 본다. 어쩌면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한때 기독교를 받아들였었으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온 사람인 것 같다⁴⁰⁾.

테오도티온이 번역한 다니엘서의 그리스어역은 칠십인역 본래의 번역과 더불어 나란히 초대 교회에 유행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칠십인역의 다니엘서를 제치고 당당하게 칠십인역 안에서 자리를 굳히고 만다. 그는 독자적인 번역을 했다고보다는 기존의 칠십인역을 히브리어 표준 성서에 근거하여 다시 재편집한 듯하다.

주후 2세기(테오도티온 직후) 히브리어 성서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또 한 사람이 있다. 이름은 쉘마쿠스이며 유대인 에비온파의 지도적 인물이었다는 듯하다⁴¹⁾. 그는 문자적 직역을 지양하고 히브리어의 정확한 의미를 그리스어로 옮

37) 아퀼라의 헬라어 역본에 대한 최근의 자료로는 Joseph Reider, *An Index to Aquila: Greek-Hebrew · Hebrew-Greek · Latin-Hebrew with the Syriac and Armenian Evidence*, (completed and revised by Nigel Turner), Supplements to Vetus Testamentum vol. XII, Leiden, 1966을 참조할 것.

38) Irenaeus, *Haer.* iii. 21. I.

39) *De Vir.* III. 54.

40) S. Jellicoe, *The Septuagint and Modern Study*, 83-84.

41) 그러나 쉘마쿠스가 누구인가에 대하여는 초대교회 교부들 간에도 의견 차이가 있다.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와(Eusebius, *Historia Ecclesiae* VI 17; *Dem. Evang.* VII. 1. 33) 제목은(Jerome, *De Vir.* III. 54; *Comm. in Hab.* III. 13; *Praef. in Job*) 그가 에비온파 내지

기는데 노력하였다. 번역에 있어서 그는 아퀼라의 번역을 많이 참고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그가 아퀼라나 다른 번역을 재편집한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그는 독자적인 번역을 수행하였고, 당대 그리스어의 표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였다.

아퀼라, 테오도티온, 씬마쿠스의 번역본들은 극히 일부의 조각 사본만을 제하고는 거의 현존하지 않는다. 이는 이들 역본들이 칠십인역만큼 대대적인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기도 한다.

2.3.4. 오리겐의 헉사플라

오리겐(주후 186-253)은 몇 가지 그리스어 번역이 한창 진행되던 주후 2세기에 태어났다. 그는 젊어서부터 히브리어 연구에 정력을 쏟기 시작하였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 공부를 시작하여, 박해를 피해 가이사라에 있는 동안 히브리어 공부를 계속하다가, 다시 이집트에 돌아와 구약 성서에 대한 집필을 시작한다.

오리겐은 히브리어 성서를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칠십인역에 히브리어 표준 성서와 다른 점이 있음을 간파한다. 그러나 교회가 이미 알렉산드리아 성서 곧 칠십인역의 경전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칠십인역을 변호한다. 이런 점에서 그는 잠22:28의 “네 선조의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라는 교훈을 엄두에 두라고 권한다. 따라서 그는 새로운 그리스어 번역을 내거나 또는 다른 역본들을 채택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러면서도 오리겐은 칠십인역과 히브리어 표준 성서의 차이점을 교회가 솔직히 배워야 하고, 아퀼라나 다른 유대인 역본들이 원문에 충실한 한 그 우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 올바른 성서 문서와 그 원래의 뜻을 확인시켜 주는 도구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 결과로 생긴 것이 헉사플라이다.

오리겐은 당시 현존하던 모든 그리스어 역본들을 수집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여섯 열로 나란히 배열한다. 그 순서는 히브리어 본문, 히브리어 본문의 그리스어 음역, 아퀼라, 씬마쿠스, 칠십인역, 테오도티온이다.

유대 기독교 이단에 속하는 것으로 믿은 반면, Epiphanius는(*De Mensuris et Ponderibus*, 16) 그가 본래 사마리아 현인이었는데 후에 유대교로 개종하고 다시 할례를 받은 후 번역 작업에 착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Alison Salvesen, *Symmachus in the Pentateuch*, *Journal of Semitic Studies*, Monograph 15, University of Manchester, 1991, p. v).

오리겐은 당시(주후 3세기) 현존하던 히브리어 성서의 순수성과 히브리어 성서와 차이점을 보이는 코이네 성서 부분의 오류를 가정함으로써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는 단지 이들을 배열해 놓은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다. 오리겐의 작업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다섯 번째 열의 칠십인역에 히브리어 표준 성서와의 모든 차이점을 특별한 부호들을 통하여 표시해 주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 성서에 없는 것이 칠십인역에 나올 경우 부호로써 이를 표시했고, 그 반대로 칠십인역에 빠졌을 때 아퀼라나 테오도티온에서 보충한 후보충했다는 표시를 해 두었다. 또 칠십인역이 분명히 오류를 범했다고 간주되는 경우는 이를 수정하였다. 히브리어 성서와 순서가 다르다든지, 칠십인역에 빠져 있다든지, 칠십인역에 더해 있다든지, 그 외의 각종 차이점이나 번역상의 문제점들을 부호를 사용하여 모두 표기한 것이다.

헉사플라는 주후 240년 또는 245년에 완성되었다. 오리겐의 작업은 칠십인역을 거부하지도 않고, 유대인 교사들의 증거를 거절하지도 않은 중간 입장을 견지한 결과이다.

히브리어 성서가 그리스어로 번역된 이후로 그리스어 칠십인역은 전수 과정 중에 불가불 여러 오류를 담게 된다. 따라서 칠십인역의 재판집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데, 주후 3-4세기 독립적으로 이런 시도가 생긴다.

헉사플라의 칠십인역은 주후 300년 경 팜필루스(주후 310년에 순교)와 가이사라 감독 유세비우스(주후 338년 사망)에 의하여 가이사라에서 복사되어 주로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되었다. 한편 이집트에서는 헤쉬키우스라는 사람이 당시 이집트에서 유행하던 성서를 수정하는데 종사하였다. 안디옥에서는 사모사타 출신의 루시안(311년 순교)이 칠십인역의 재판집 작업에 종사하였다. 하지만 이런 재판집 작업은 도리어 오류를 더 늘렸을 뿐이다.

2.3.5. 시리아어역 페쉬타

시리아 정교회가 전수해왔으며 ‘페쉬타’라고 일컬어지는 시리아어역 성서의 기원에 대하여는 정확한 정보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페쉬타가 반영하고 있는 히브리어 본문이 일반적으로 마소라 본문과 일치하거나 근접하는 것으로 보아⁴²⁾, 페쉬타는 마소라 본문이 어느 정도 정립되기 시작하는 주후 70년

42) 일부 학자들은 페쉬타가 칠십인역에서 번역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는 J.A. Lund, *The Influence of the Septuagint on the Peshitta* --- A

이후에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페쉬타 사본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주후 5세기의 것이 있고, 나머지는 5세기에서 12세기에 걸쳐 기록된 사본들이다.

2.3.6. 라틴어 구역과 제롬의 불가타

구역 성서가 처음으로 라틴어로 번역된 것은 대략 주후 2세기 무렵의 일이다. 이를 후기에 제롬이 번역한 것과 구분하기 위하여 보통 라틴어 구역이라고 부르는데, 라틴어 구역은 직접 히브리어 성서를 번역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어 칠십인역을 다시 번역한 것이다. 주후 4세기 라틴어 구역의 사본들이 다양한 양태를 보이면서 교황은 라틴 성서 본문을 재구성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리하여 청탁을 받게 된 성서학자가 보통 제롬이라고 불리는 유세비우스 히에로니무스이다.

이처럼 제롬은 본래 교황의 지시를 받아 당시 기존의 라틴어 구역 성서들을 칠십인역을 근거로 수정 재편집하는 작업을 시작한 사람이다. 제롬은 이 작업을 착수하기 전인 주후 380/1년 경에 이미 칠십인역의 번역 자체에 대하여 문제점을 언급한 바 있다⁴³⁾. 제롬은 칠십인역의 연구를 통하여 그것이 히브리어 성서와 다른 점이 있음을 간파하였다. 그는 칠십인역의 차이점들을 후대 필경사들이 범한 것과 번역자 자신들에 의한 것 둘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일부는 문체상의 이유로 일부는 성령의 권위에 의하여 변경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제롬의 의견에 의하면, 칠십인역의 번역자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번역 작업을 수행하였지만 단순한 기계적 도구로서 한 자 한 자 옮겨 쓴 것이 아니라⁴⁴⁾ 번역문에서의 문체 선택에 있어서 자유로움을 보였다. 따라서 문체상의 이유로 번역문에 일부 내용을 덧붙인 이는 하나님이나 번역자들이 되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번역문은 비록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으나 언어상의 차이점과 문체상의 이유 등으로 원문과 다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롬의 견해는 성서 번역문이 원문을 대치하는 것이 아

Re-evaluation of Criteria in Light of Comparative Study of the Versions in Genesis and Psalms, unpublished dissertation, Hebrew University, Jerusalem, 1988을 참조할 것.

43) W. Schwarz, "Discussion on the Origin of the Septuagint", *Studies in the Septuagint: Origins, Recensions and Interpretations(Selected Essays with a Prolegomenon Studies)* (ed. S. Jellicoe), New York, 110-137.

44) 이런 견해는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니요 보완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제롬은 라틴어 구역이 칠십인역에서 번역된 것이므로 히브리어 원문에서 거리가 멀어졌다고 언급하였다. 기존의 라틴어 성서 수정 작업을 계속하던 중 그는 칠십인역에 대한 견해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때때로 히브리어 원문이 그리스어 번역문보다 우월하다는 결론을 내린 그는 더 이상 칠십인역의 신비로운 기원이나 신적 영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사도들에 의하여 신약 성서에 인용된 구약 성서의 내용들이 칠십인역보다는 히브리어 원문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신약 성서와 히브리어 원문의 일치야말로 히브리어 성서의 권위를 완벽하게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제롬은 당시 교부들 사이에 퍼져 있던 칠십인역에 대한 전승이 아리스테아스가 기록한 내용과 불일치함을 간파하고, 그들 번역자들이 번역한 것은 모세 오경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제롬의 견해가 여기까지 미치자 그는 칠십인역의 신적 권위나 또는 그에서 번역된 라틴어 구역의 권위를 신빙하는 이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제롬은 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달한 이후로 실망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추진해 나갔다. 제롬은 칠십인역이 히브리어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한 것이라는 견해를 포기하였다. 그는 더 이상 그리스어 번역문이 영감된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각성은 그를 두 가지 결론으로 이끌었다: 1) 히브리어에서 직접 라틴어로 성서를 새롭게 번역할 필요가 있다. 2) 영감된 번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번역은 예언이 아니다. 성서 번역은 원문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충분한 언어 지식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롬은 주후 390년에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부터 새로운 번역을 시작하여 404년에 구약 번역을 완성한다. 제롬은 본래 외경의 번역을 원치 않았으나 주위의 요구에 못 이겨 유딧서와 토비트를 대충 번역한다. 처음에 제롬의 번역은 교회의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 어거스틴과 같은 지도자가 반대했을 정도니 그야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제롬이 히브리어에서 직접 번역한 라틴역은 마침내 구 라틴역의 외경과 갈리칸 시편(제롬이 칠십인역을 기초로 구 라틴역을 다시 수정한 것)이 더해져서 불가타란 이름의 공인된 성서로 자리를 굳힌다⁴⁵⁾.

45) 그러나 불가타가 교회의 공식적 승인을 얻은 것은 1546년 4월 8일의 일이다(W. Schwarz, "Discussions on the Origin of the Septuagint", p.137 주).

2.3.7. 칠십인역에서 나온 다양한 역본들

교회에 이방인의 수가 유대인을 훨씬 초과하면서 교회의 지도층 역시 이방인 쪽으로 옮겨갔다. 이들 이방인들 중 히브리어를 해독할 줄 아는 이들은 거의 전무였다. 이들의 대부분은 당시 지중해 모든 지역과 유럽 세계까지 지배하던 헬라 문화의 언어, 곧 코이네 그리스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칠십인역은 교회 성서로서의 지위를 굳히기 시작하였다. 소위 말하는 이방인 교회는 칠십인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이다.

주후 2세기 이후로 유대인 가운데 칠십인역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자 기독교의 교사들과 저술가들은 자연스럽게 알렉산드리아 성서에 더욱 귀착하게 되었다. 본래 칠십인역은 모세 오경에 국한되어 사용된 용어였으나, 주후 2세기 경부터 기독교인들에 의하여 그들이 표준 성서로 받아들인 그리스어 구약 전체(이중에는 외경도 포함됨)를 가리키는 용어로 확장되어 쓰이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칠십인역이 오래 된 점과 또 복음 기자들과 사도들에 의하여 사용된 점을 들어서 칠십인역의 권위를 옹호하였다. 이들은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 나오는 칠십인역 유래의 전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더욱 미화시켰으며, 필로가 그랬던 것처럼 칠십인역의 영감이 결코 원문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칠십인역이 당대의 히브리어 성서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이들은 칠십인역의 오류가 전래 과정 중에 일어났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이 실제적인 오류가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미래 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원문을 적합하게 변형시킨 것이라고 하였다.

칠십인역이 초대 교회의 교리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터툴리안, 사이프ريان, 클레멘트, 바르나바스, 저스틴, 이레니우스 등의 교부들에게 있어서 칠십인역은 교회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은 구약 성서였다. 다른 어떠한 번역이나 원문도 이처럼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히브리어 지식을 습득한 이들 조차도 이 전승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리겐은 칠십인역이 히브리어 성서와 다른 점을 간파하고 헉사플라를 통하여 그 둘을 조화시키고자 노력하였으나, 보통 쓰는 그리스어 성서를 가지고 설교와 주석을 하였다. 심지어 그는 자기 주석 체제를 잠22:28⁴⁶⁾의 칠십인역 본문에 기초하고 있다. 제롬은 그의 라틴어 역의 기초로서 히브리어 성서를 결정하기까지

46) “네 선조의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러한 그의 결정은 결국 주위의 비난을 불러일으키었다. 어거스틴은 비록 제롬의 의도를 동정하긴 하였으나, 그것이 칠십인역의 권위를 실추시킴으로써 평신도를 불안케 할 의심스런 정책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방 교회에 미친 그리스어 칠십인역의 영향력은 이뿐만 아니라 주후 2-9세기 사이의 성서 번역을 살펴보다도 잘 알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 교회의 확장 및 선교 활동을 통하여 성서가 여러 언어로 번역되는데, 제롬의 라틴역 불가타와 페쉬타라고 불리는 시리아어역만 제외하고 모두 칠십인역에서 번역되었다. 이처럼 칠십인역에 기초한 번역들로는 라틴어 구역, 이집트어(콥트어)역, 에디오피아어역, 아랍어역, 고트어역, 아르메니아어역, 조지아어역 등을 들 수 있다. 칠십인역은 오늘날까지도 동방 정교회의 구약 경전으로 쓰이고 있다.

2.4. 주후 9세기에서 10세기까지

2.4.1. 마소라 성서

중세의 모든 히브리어 성서 사본들을⁴⁷⁾ 조사 연구한 켄니코트(Kennicott)⁴⁸⁾와 드로시(de Rossi)⁴⁹⁾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우리는 주후 10세기 이후의 모든 히브리어 성서 사본이 비상하게 일치함을 알 수 있다⁵⁰⁾. 이 모든 사본학적 증거들은 소위 말하는 마소라 성서를 대변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히브리 성서 사본들의 일치는 비단 주후 10세기에서 시작되는 것은

47) 마소라 본문 계열에 속하는 필사본으로는 6,000개 이상이 알려져 있다. 1540년 이전의 것으로는 2,700개 가량의 필사본이 존재하는데, 그 중 6개의 코텍스는 10세기의 것, 8개는 11세기의 것, 22개는 12세기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니사 조각 사본들 중 약 60개는 1200년 이전 것으로 알려져 있다(E.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23).

48) B. Kennicott, *Vetus Testamentum Hebraicum cum Variis Lectionibus* I-III, Oxford, 1776-80.

49) J.B. de Rossi, *Variae Lectiones Veteris Testamenti* I-IV, Parma 1784-88(1969년 재판: Amsterdam); *Scholia Critica*, 1798.

50) 켄니코트와 드로시 외에 주후 1100년 이후에 기록된 마소라 사본들의 차이점을 수록한 책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Minhat Shay*(17세기에 Nozri의 Yedidyah Shelomo가 기록하였고, 1742-1744년의 Mantua 간행본을 필두로 하여 랍비 성서를 비롯 여러 성경 간행본에 수록됨); J.C. Döderlein & J.H. Meisner, *Biblia Hebraica*(Halle/Berlin 1818); C.D. Ginsburg, טב על-פי המסרה ועל-פי דרפוסים ראשונים עם הלופים ותרגומים ישנים תורה נביאים כתובים, מדויק הי והגהות מן כתבי יד עתיקים (London 1926; repr. Jerusalem 1970).

아니다. 주후 4세기 제롬이 라틴어 번역의 근거로 삼았던 히브리어 성서 역시 사실상 마소라 성서와 일치하는 것이며, 주후 3세기의 오리겐이 사용한 히브리어 성서 역시 마소라 성서 또는 제롬의 히브리어 성서와 다른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주후 2세기의 아퀼라역 역시 마소라 성서와 거의 다를 바가 없다. 아퀼라역과 마찬가지로 칠십인역을 개찬한 ‘카이게-테오도티온’(kaige-Theodotion)과 쉘마쿠스 역시 마소라 본문을 반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아람어 타르굼, 미슈나와 탈무드에 인용된 구약 성서, 와디 헤벨과 맞사다 등지에서 발견된 사본들, 심지어 주전 3세기에서 주후 1세기 사이에 기록된 쿵란 사본들 중 대략 60%나 차지하는 사본들을 통하여 보더라도 마소라 성서의 전승이 적어도 주전 3세기까지 올라감을 알 수 있다. 학자들은 이를 보통 ‘원 마소라 본문’(proto-Massoretic text)이라고 부른다.

구약 성서에 있어서 표준 성서의 본격적인 대두는 대체로 주후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 시기 이전의 것으로 간주되는 사본들이(쿵란에서 발견된 히브리어 사본들, 및 칠십인역과 사마리아 오경의 원본들) 다양성을 보이는 반면에 주후 70년(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던 해) 이후에 쓰인 모든 히브리어 성서 사본들이 예외없이 근소한 차이 말고는 전체적인 통일성을 보이기 때문이다⁵¹). 이러한 통일성은 일반적으로 서기관들과 마소라 학자들의 노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한 가지 강조하여야 할 점은 마소라 성서는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 새롭게 편집해낸 인위적 작품이 아니요 기존의 여러 성서 사본 중 가장 잘 전수된 사본 하나를 골라 그것을 표준 전승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다.

유대인의 히브리어 표준 성서는 서기관의 바통을 이은 마소라 학자들의 노고를 통하여 더욱 확고하고도 안전하게 보존 전수된다. 히브리어 낱말 ‘마소라’는 ‘전통’을 의미한다. 마소라는 성서 본문의 정확한 전수를 위하여 성서 본문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 주를 달거나 특별한 부호를 명기한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마소라 성서’이라고 함은 이들 유대인 마소라 학자들에 의하여 전수된 자음 성서 본문 내지는 그들에 의하여 보다 이용하기 편리하게 여러 가지 보조 수단(=마소라)들을 통하여 단장된 히브리어 구약 성서를 가리킨다.

히브리어 구약 성서는 본래 순수한 자음만으로 기록되었다. 히브리어 자체가 애초에 모음부호가 없이 자음 부호만으로 표기되는 언어였기 때문이다. 마

51) M.H. Goshen-Gottstein, "Hebrew Biblical Manuscripts: Their History and Their Place in the HUBP Edition", *Biblica* 48(1967), p.248.

소라 학자들은 표준 자음 성서의 본문만 전수한 것이 아니라, 모음 부호와 강세표를 고안하여 이를 자음 본문에 옷입히기도 하였다. 언제부터 모음 부호가 히브리어 성서 사본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제까지 알려진 사본 중 최초로 모음 부호가 완전히 사용된 것은 주후 895년 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카이로 사본이다. 보통 인쇄된 히브리어 마소라 성서의 모음 체계는 티베리아 전통을 따른 것이다. 한편 히브리어의 강세표는 비단 음의 강약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내 낱말들 사이의 통사론적 관계를 규정하거나 또는 각종 구두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서기관들의 전통을 이어 계속적으로 구약 표준 성서를 보호하고자 수고한 마소라 학자들의 전통은 보통 서너 갈래로 나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하며 오늘날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전통은 티베리아 마소라이다. 마소라는 대략 주후 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걸쳐 히브리어 표준 성서 전수에 중사한 유대인 마소라 학자들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2.4.2. 벤 아셀의 코덱스

주후 7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걸쳐 티베리아에서 활동한 마소라 학자들 가운데 벤 아셀 가문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벤 아셀 가문의 전승은 후에 보편적으로 채택되어, 오늘날 마소라 성서의 대명사가 되었다.

벤 아셀 가문의 한 사람인 모세 벤 아셀은 이미 주후 890-895년 경에 하나의 마소라 사본을 편집한 사람이다. 카이로 사본⁵²⁾이라고 불리는 이 사본은 히브리어 성서의 세 부분 중 예언서만을 포함하고 있다. 사본 내에 기록된 발문(跋文)에서 이 사본의 기록자는 자신을 모세 벤 아셀이라고 밝히면서, 이것을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 제 827년에 티베리아에서 완성하였다고 말한다. 이것은 유대인 연대 계산법에 의한 것으로서 현재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력에 의하여 주후 895년에 해당하는 것이다.

마소라 성서를 얘기할 때 주후 10세기에 활동한 아론 벤 아셀의 사본을 빼놓을 수 없다. 아론 벤 아셀은 위에 언급한 모세 벤 아셀의 아들로서 자기 아버지의 사본보다 더 유명한 마소라 성서 사본을 남긴 사람이다. ‘알렘포 사본’(א 또는 A로 표시함)⁵³⁾이라고 불리는 이 성서 사본은 주후 10세기 전반기

52) F. Pérez Castro, *El codice de Profetas de el Cairo*(Madrid 1979-). Facsimile edition: D.S Loewinger(Jerusalem 1970).

에 기록된 것으로서 구약 성서 전체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1947년 시리아에서 일어난 반 유대인 소요로 인하여 전체의 사본지일을 잃게 되었다. 이 사본은 시리아의 알렙포 회당에 보관되었었으나 현재 이스라엘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현재 히브리 대학에서 편찬 중인 구약 성서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레닌그라드 사본’⁵⁴⁾은 아론 벤 아셀의 마소라 성서를 참조하여 수정한 사본으로서(주후 1008년), 성서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마소라 성서 사본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 사본은 기독교 학자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BHS, BHQ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들 외에 벤 아셀 전통의 모음부기를 반영해 주는 10세기의 주요한 사본들로는 Codex B.M. Or. 4445 (B), Codex Sassoon 507, Codex Sassoon 1053 등이 있다⁵⁵⁾.

3. 나가는 글

히브리어 구약 성서는, 비록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문헌이 현존하지는 않지만, 히브리어 사본과 고대 역본들의 사본을 포함하여 방대한 분량의 필사본을 남기고 있다. 이처럼 엄청난 분량의 자료는 자칫 잘못하면 구약 성서 편집자들을 혼돈에 빠뜨릴 수도 있다. 그러나 구약 성서 전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다양한 사본들의 성격과 위치를 파악하고 있을 때, 구약 성서 문헌의 양적인 방대성은 편집자에게 방해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히브리어 구약 성서의 전래 과정에 있어서 무수한 사본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원 마소라 본문’의 압도적인 위치를 알고 있다. 그리고 비록 여러 사본들 중에서 상당히 후기에 속하긴 하지만 성서 전수에 대한 집념과 필사 작업에 대한 자세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마소라 본문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마소라 본문을 대표하는 벤 아셀의 코덱스는 BHK 3판 이후로 대부분 구약 성서 간행본들의 본문으로 채택되는 바, 그야말로 모든 필사

53) M. Goshen-Gottstein (ed.), *The Aleppo Codex, written by Shelomo ben Buyaa (the consonants only) and vocalized, accented and provided with Massoretic notes by Aaron Ben Asher in approximately 925 CE. The codex considered authoritative by Maimonides*(Jerusalem, 1976).

54) Facsimile edition: D.S Loewinger, *נביאים וכתובים כתב יד לנינגרד B19A* תורה(Jerusalem 1970)

55) E.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46-47.

본들 중에 가장 훌륭한 필사본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벤 아셀의 코텍스 중에 선배격인 알렘포 코텍스는 아쉽게도 민족 및 종교의 차이에 따른 정치적 분쟁의 희생물이 되어 그 사본지 일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나마 알렘포 코텍스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레닌그라드 코텍스가 온전히 보존되어 내려온 것은 성서 사본학계의 복이라고 하겠다. BHQ 편집진이 이 레닌그라드 코텍스에 기초하고 외교적인 편집 방식을 채택하여 구약 성서의 다양한 증거 본문을 십분 활용, 훌륭한 본문 비평 장치를 준비하고자 하는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하겠다. 모든 성서학자들과 번역자들이 만족해 할 만한 BHQ를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